

종교와 폭력: 평화를 모색하는 리얼리즘과 기독교현실주의*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리얼리즘(Realism): '실재'와 '현실'
- III. 정치적 현실주의
- IV. 기독교 현실주의: 전쟁론을 중심으로
- V. 기독교 현실주의의 과제와 전망: 실재 대(對) 현실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2.02>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3814). 필자는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와 <기독교사회윤리> 42집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동시에 같은 학회가 주최한 정기학술대회(2018.11.24.)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들이 걷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한반도 평화와 기독교현실주의”를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은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 논문임을 밝힌다.

• ABSTRACT •

Religion and Violence: Realism and Christian Realism for Peace

Prof. Yoo, Kyoung-dong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Peace has been an issue related to faith in the Christian tradition as much as it has been an permanent issue for humanity. The reason why peace issue has been on the rise is because suffering inflicted by violence was transferred upon the weak, mostly due to power struggles. In relation to the issue of violence, nonviolent pacifism and realistic approach were traditionally proposed as alternatives in the Christian world view, The nonviolent pacifism, resisting with body the evil reality hiding behind the human conscience or human nature, appeals to the peace and love so that violence is no longer reproduced. This research examines the theoretical aspect of 'Christian Realism' in relation to the understanding of realism in general. Three aspects of the theory of Realism will be examined. Firstly, the concept of 'Realism' will be analyzed from the political ethics' perspective. Secondly, 'Christian Realism' will also be analyzed and examined in line with Augustinian tradition. Thirdly, in the conclusion, Christian ethical alternative will be proposed. Thus, this research explores the meaning of Christian realism in terms of the issue of peace.

Key words: Realism, Christian Realism, War and Peace, Power, Religion, Violence

I. 들어가는 말

평화는 인간의 항구적인 과제이자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는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평화의 문제가 대두되는 중요한 이유는 주로 권력투쟁을 통하여 약자들에게 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폭력의 문제에 대하여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과 현실주의적 입장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고 본다. 비폭력 평화주의는 인간의 양심, 또는 인간성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적 실체에 대항하여 몸으로 폭력을 저항하되, 더 이상 폭력이 재생산 되지 아니하도록 평화와 사랑에 호소한다. 이와 달리 기독교 현실주의는 폭력을 야기하는 권력욕에 취한 인간성의 실체를 해부하고, 폭력에 대한 대안은 세력균형과 올바른 권력, 그리고 인간 이성의 역할을 기대하며, 연대를 통한 평화의 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정치적 폭력을 극복하는 ‘리얼리즘(Realism)’과 ‘기독교 현실주의(Christian Realism)’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론적 검토는 크게 세 가지 점이다. 첫째는 ‘리얼리즘(Realism)’을 ‘실재’와 ‘현실’이라는 정치윤리의 해석학적 관점에서 평화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모색하여 보도록 하겠다. 둘째, 실재와 현실 개념을 기독교 현실주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전쟁과 같은 폭력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던 어거스틴(Augustine), 아퀴나스(Thomas Aquinas), 그리고 루터(Martin Luther)의 현실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셋째, 정치적 현실주의와 기독교 현실주의의 이론을 비교 검토하면서 기독교 폭력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주의와 실재론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리얼리즘(Realism)을 각 분과마다 다양하게 사용하

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전쟁과 같은 폭력의 사안에 대하여 정치적 리얼리즘과 종교적 관점에서의 기독교 리얼리즘의 간학문적 통섭의 예비적 고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리얼리즘(Realism): ‘실재’와 ‘현실’

리얼리즘(Realism)에서 라틴어 ‘realis(res+alis)’어원인 ‘res’는 ‘어떤 것(thing)’을 지칭하는 ‘실재’나 ‘사물’을 의미한다.¹⁾ 따라서 리얼리즘은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것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리얼리즘(Realism)’이라는 영어 단어는 한국 학계에서 분야별로 다소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인문학에서 ‘실재’의 개념은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며 보면, 우선 철학에서 실재의 개념은 학자마다 그 의미지평에 차이가 있음을 본다. 필자의 일반적인 이해로는, 플라톤(Plato)의 경우, ‘이데아(idea)’는 인간의 경험세계 이전에 구성된 실재이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게 실재는 사물의 실체와 연관하여 인간의 심성에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으며, 데카르트(Descartes)는 실재를 인간의 사고 영역에서 가능하다고 보았고, 반대로 흄(David Hume)과 같은 경우는 경험론을 통하여 인식 내 실재를 주장하였다고 본다.²⁾

한편 ‘과학적 실재론’에 대하여 안잔 차크라바티(Anjan Chakravarty)는

1) William L. Reese, "Realism," *Dictionary of Philosophy and Religion* (Humanities Press, 1987), 637.

2) 이와 같은 필자의 이해는 국내 도서 가운데 아래의 번역 서적이나 사상 서적에도 잘 설명되어 있다. 플라톤, 『국가론』(이환 역, 돌출세김, 2014).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천병희 역, 숲, 2013). 이종훈, 『데카르트의 삶과 진리 추구』(이담복스, 2012). 데이비드 흄, 『인간이란 무엇인가』(김성숙 역, 동서문화사, 2009).

물리적 세계관을 관찰과 실험으로 증명하여 객관적 실재를 진리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과학적 언어와 이론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³⁾ ‘경제적 실재론’에 대하여서 워런 새뮤얼스(Warren J. Samuels)는 경제적 행위가 실재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연관하여, 경제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존재론적 실재론과, 개념적인 유형으로 경제를 파악하는 인식론적 실재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⁴⁾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채드 마이스터(Chad Meister)는 실재론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신앙으로 해석하였으며, 그 대상도 내면적인 신앙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하였다.⁵⁾ 따라서 기독교 실재론에 대하여 앤드류 무어(Andrew Moore)는 ‘리얼리즘(Realism)’은 신 존재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영생이라는 종교적 세계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⁶⁾ 나아가 빅터 로메로(Victor C. Romero)도 같은 맥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재는 인간의 원죄를 극복하며,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복음’의 실재를 인정하게 되는

3) Anjan Chakravartty, “Scientific Realism,” Edward N. Zalta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16), URL=<https://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6/entries/scientific-realism/>(최종접속: 2018년 12월 16일)

4) Warren J. Samuels, “Equilibrium Analysis: A middlebrow View,” Valerie Mosini ed., *Equilibrium in Economics: Scope and Limits* (NY: Routledge, 2007), 171.

5) Chad Meister, “Philosophy of Religion,”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URL=<http://www.iep.utm.edu/religion/>(최종접속: 2018년 12월 16일). 채드 마이스터는 그의 논문에서 북아메리카와 유럽 쪽에의 이 분야의 연구 주제와 연관하여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각 각 “(1) 종교적 언어와 신념, (2) 종교적 다양성, (3) 신 개념/궁극적 실재, (4) 신 존재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쟁, (5) 악과 고통의 문제, 그리고 (6) 기적”이라고 설명한다. 같은 논문.

6) 앤드류 무어(Andrew Moore)는 기독교 실재론은 창조자가 창조세계에 실존을 부여한 입장을 중시한다. Andrew Moore, *Realism and Christian Faith: God, Grammar, and Meaning*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4.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⁷⁾

‘신학적 실재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앙적 언어인 ‘복음’이 실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성서적 실재론(Biblical Realism)’을 강조한 하워드 요더(Howard Yoder)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구현하는 실재라고 강조하였다고 본다.⁸⁾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탠리 하우어워즈(Stanley Hauerwas)도 기독교윤리는 인간이 도덕적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계시된 도덕(Revealed Morality)’이 아니라 ‘제자도’를 통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계시된 실재(Revealed Reality)’라고 보았다.⁹⁾

알렉산더 모슬리(Alexander Moseley)에 따르면, ‘정치적 실재론’이란 국내·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유형화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정치 행위를 진단하려는 이론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국내정치에서는 정치인이, 그리고 국제정치에서는 국가들이 정치적 현실주의에서 중요한 주체라고 보고 있다.¹⁰⁾ 모슬리는 정치와 연관된 다양한 동기는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와 연관이 되는

7) 빅터 로메로(Victor C. Romero)는 예수의 부활과 기독교 신앙의 실존을 연결하여 설명한다. Victor C. Romero, “Christian Realism and Immigration Reform,” *University of St. Thomas Law Journal*, Vol.7, No.2, 2010, 326.

8) 하워드 요더(Howard Yoder)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실재라고 보고 있다. Howard Yoder, *The Politics of Jesus*, 신원하 역, 『예수의 정치학』(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14-27.

9) 스탠리 하우어워즈(Stanley Hauerwas)는 기독교윤리를 선(good)을 묻는 질문 속에서 형성되는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재 앞에서 결단하여야 책임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Stanley Hauerwas, *Excerpts from From Christ To The World*, ed. by Wayne B. Boulton et al.,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34.

10) Alexander Moseley, “Political Realism,”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URL=<http://www.iep.utm.edu/polreal/>(최종접속: 2018년 12월 16일) 정치학에서 ‘realism’을 실재론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현실주의로 해석할지에 대하여, 필자는 정치학에서 정치사상과 연관된 이론을 다룬다는 관점에서, 모슬리의 ‘realism’을 ‘실재론’으로 번역함을 밝힌다.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정치-윤리적 원리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¹¹⁾ 모슬리는 ‘정치적 실재론’은 정치적 주체와 이를 행사하는 권력을 전제하며, 따라서 권력은 인간의 인식과는 별도로 객관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²⁾

지금까지 필자는 ‘리얼리즘(Realism)’이란 단어를 ‘실재론’으로 해석하는 관점들을 살펴보았다. 기독교 정치윤리에서는 ‘실재론’이 대부분 ‘현실주의’로 해석이 되고 있으며, 때로는 명사 ‘리얼리티(Reality)’가 ‘현실’로 해석되기도 한다. ‘리얼리즘(Realism)’ 또는 리얼리티(Reality)가 ‘실재’로, 혹은 ‘현실’로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현실 적합성’의 문제와 연관이 되며, 글 쓰는 사람의 몫이지만,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편적인 학문적 명칭으로는 ‘실재’로, 그리고 정치 또는 ‘power(권력, 힘, 무력, 세력)’가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에는 ‘현실’로 번역하는 것이 무난할 듯하다. 왜냐하면 ‘현실’이란 의미가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리얼리즘에 대한 해석은 학계와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지평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정치적 현실주의와 기독교 현실주의에서 리얼리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자.

III. 정치적 현실주의

앞 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리얼리즘이 ‘실재’와 ‘현실’로 개념에 따라서 의미가 차이가 있듯이, 권력개념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권력이 발생할 수 있는 정치구조적인 요소들의 결합을 요

11) 위의 글.

12) 위의 글.

구하는지 다소 모호하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권력구조, 즉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실재이며, 무력(force)과 같은 물리적인 힘을 동반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는 듯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을 해석하는 백과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권력이 불가피하다고 볼 때, 이를 의지와 같은 내재적인 본능이라고 본 니체(Friedrich Nietzsche)나 생물학적 자연의 법칙으로 본 다윈(Charles Darwin)식의 해석도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 같으며, 권력은 사회구조적 권력관계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본 푸코(Michael Foucault)식의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¹³⁾

필자의 견해로는 국제정치에서의 현실주의와 관련이 된 권력이론으로서 리얼리즘은 관념론적인 요소와 실재론, 그리고 현실주의의 개념이 중첩이 되어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리얼리즘, 즉 현실주의에서 다루는 여러 기본 개념에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네 가지 이론은 ‘무정부 구조’, ‘안보 딜레마’, ‘세력 균형’, 그리고 ‘전쟁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¹⁴⁾ 그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째는 국제정치에서 ‘무정부(anarchy)적 구조’의 문제이다.

13) 이 해석은 포스트모더니즘을 해석하는 백과사전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니체나 다윈, 그리고 푸코의 ‘권력’에 대한 이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Encyclopedia of Postmodernism, ed by Victor E. Taylor and Charles E. Winquist (Routledge World Reference, 2003), 311-313.

14) 필자는 ‘정치적 현실주의’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개괄하는 ‘무정부’, ‘안보 딜레마’, ‘세력 균형’에 대한 기본 개념은 ‘YouTube’에 있는 아래의 강의를 참고하였다. 이 강의를 근거로 필요한 경우 사상가들의 원본을 찾아 개념을 확인하였으며, 강의 내용에 대한 개인용 부호는 생략함을 밝힌다. Randall Schweller, “Theory in Action,” URL=<https://www.youtube.com/watch?v=UnKEFSVAiNQ>(최종접속: 2018년 12월 16일)
Rhonda Callaway, “Realism and Liberalism,” URL=<https://www.youtube.com/watch?v=j2ssqtToU0>(최종접속: 2018년 12월 16일)
Eric Hines, “Realism,” URL=<https://www.youtube.com/watch?v=eoqvax-b6JM>(최종접속: 2018년 12월 16일)

일반적으로 무정부상태는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적 상황이나 고전 정치 철학에서는 사회 계약이나 질서를 통해 극복해야 할 상태로 보게 되는데,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무정부상태가 오히려 국제 질서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입장을 최초로 전개한 사람은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라고 알려져 있다.¹⁵⁾

케네스 왈츠는 자연상태로서의 무정부상태(anarchy)는 국제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 내 국가 간의 균형을 정의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보며, 무정부상태는 그 자체로 구조적 질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구조적이라고 본다.¹⁶⁾ 따라서 그는 “국가들이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은 국가들 간의 무정부 상태에 기인한다.”고 해석한다.¹⁷⁾

둘째,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와 이에 따른 ‘군비 경쟁’이다.

국제관계에서 각 국의 독립성은 국가 간 경쟁관계에 놓일 때, 군사적 안보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생존을 위한 에너지 확보의 경쟁구도에서

15) 무정부(anarchy)적 구조 개념에 대한 왈츠의 해석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Helen Milner, “The Assumption of An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Critiqu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7(1), (Jan, 1991), 67-85. 헬렌 밀너는 왈츠의 이론을 국제 관계 무정부상태에 대한 구조적 모델이라고 평가한다. 참고로 왈츠의 이론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아래의 사이트에 잘 설명되어 있다. Francisco Eduardo Tunez, “Realistas An Introduction to Kenneth Waltz’s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 Macat Politics Vi,” URL=https://www.youtube.com/watch?v=Lz_EnqamQwU(최종접속: 2018년 12월 16일)

John Mearsheimer, “Structural Realism - International Relations (1/7),” URL=<https://www.youtube.com/watch?v=RXlIDh6rD18>(최종접속: 2018년 12월 16일)

16)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g Grove, IL: Waveland, 2010), 88.

17)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x.

선점을 취하여야 하는 조건에서 안보는 최우선의 관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필자가 이해하는 바로는, 미국과 같은 경우, 국지적으로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은 나라와 묶여있기 때문에 국가 간 안보 협력이 가능하며, 유럽도 러시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보보다는 경제적 경쟁관계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렇지 못한 아시아의 경우, 불안정한 국지적 긴장관계로 ‘안보 불안’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무장하여야 타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가 관건인 ‘안보 딜레마’¹⁸⁾의 상황에서, 위협국의 군사력보다 앞설 수 있는 ‘군비경쟁’은 필연적이 되고 만다.

앤더스 위벨(Anders Wivel)에 따르면, 안보 딜레마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정치철학자인 존 허츠(John Herz)로 알려져 있다.¹⁹⁾ 존 허츠는 1950년에 출판한 논문 “이상주의적 국제주의와 안보 딜레마(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the Security Dilemma)”²⁰⁾에서 안보 딜레마를 이렇게 정의한다.

[정치 단위로서 다양한 그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룹 또는 개인은 ... 다른 그룹이나 개인에게 공격당하거나, 예측되거나(subjugated), 지배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부터] 자신의 안보에 대해 걱정할 수 밖에 없으며, 대개 그러하다. 그러한 공격으로부터의 안보를 획득하기 위해

18) 국제정치에서의 ‘안보 딜레마’에 대한 기본 이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Eric Hines, “Realism,” URL=<https://www.youtube.com/watch?v=eoqvax-b6JM>(최종접속: 2018년 12월 16일), “What is Security Dilemma?”, The Audiopedia, URL=https://www.youtube.com/watch?v=v4Bum_GVQ8Q(최종접속: 2018년 12월 16일)

19) Anders Wivel, “Security Dilemma,” *Encyclopaedia Britannica* (Mar. 22, 2017), URL=<https://www.britannica.com/topic/security-dilemma>(최종접속: 2018년 12월 16일). 앤더스 위벨은 실제로 안보 딜레마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존 허츠(John Herz)이지만, 안보 딜레마 개념의 논리적 기초는 영국 역사가 허버트 버터필드(Herbert Butterfield)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지적한다.

20) John H. Herz, “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2(2), (Jan. 1950), 157-180.

노력하면서, 개인이나 그룹은 다른 세력으로부터의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권력을 모으려는 충동에 빠진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의 불안정을 강화시키고, 그들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몰아간다.²¹⁾

허츠는 안보 딜레마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회성에 기반을 두지만, 이는 언제나 정치적 권력 단위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지적한다.²²⁾ 허버트 버터필드(Herbert Butterfield)는 국제관계에서 국가 권력 간의 세력 확장에 나타나는 딜레마를 지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근대 국제적 분쟁에 있어서 비극적 요소(The Tragic Element in Modern International Conflict)”²³⁾에서 역사상 벌어진 대규모 전쟁은 강대국 간의 대결이었음을 지적하고, 전쟁의 역사는 언제나 상대를 적, 또는 악으로 규정하며, 자국의 군사적 행위는 정당화하고, 반대로 상대의 행위는 비정당화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통하여, 타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²⁴⁾

셋째,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문제이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Thucydides)²⁵⁾는 세력 균형이라는

21) 위의 책, 157.

22) 위의 책, 158.

23) Herbert Butterfield, “The Tragic Element in Modern International Conflict,” *The Review of Politics*. 12(2), (Apr. 1950), 147-164.

24) 위의 논문, 147.

25) 국제 정치학 측면에서 현실주의적 입장과 세력 균형의 시초를 투키디데스로 보는 입장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이론들을 참고하였다. Korab-Karpowicz, W. Julian, “Political Re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Edward N. Zalta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ummer 2018 Edition), URL=<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um2018/entries/realism-intl-relations/>(최종접속: 2018년 12월 16일)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국제 관계에 있어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를 상대국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의하면서, 이 때 두려움은 단순히 심리적 차원이 아니라, 두 세력 간의 군사력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성적이며 합리적 결과로 투키디데스는 보고 있다.²⁶⁾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세력 균형 개념은 이미 국가 간 국제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유되고 형성된 기본적인 개념으로 본다.²⁷⁾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전쟁에 이르기 까지, 세력 균형 개념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²⁸⁾ 흄은 전쟁사에 있어서 패자들

Alexander Moseley, "Political Realism,"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URL=<http://www.iep.utm.edu/polreal/>(최종접속: 2018년 12월 16일)

Laurie M. Johnson Bagby, "The Use and Abuse of Thucydid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8(1). (Winter, 1994), 131-153. Jonathan Monten, "Thucydides and Modern Realis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0(1), (Mar. 2006), 3-25.

26) Thucydides, trans. by Charles F. Smith,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Book I and II*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43. Book I, section 23, lines 5-6.

27) 데이비드 흄의 국제 정치 이론 및 세력 균형이론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A. F. Pollard, "The Balance of Power," *Journal of the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2), (Mar. 1923), 51-64.; Edwin van de Haar, "David Hume and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a Reappraisa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4(2), (April 2008), 225-242. 폴라드(Pollard)는 흄의 세력 균형 이론에 대해 논의하면서, 세력 균형 개념 자체는 근대적 개념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세력 균형은 평화를 위한 정치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A. F. Pollard, "The Balance of Power," *Journal of the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2), (Mar. 1923), 52. 한편, 에드윈 반 드 하르(Edwin van de Haar)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흄이 주장하는 세력 균형이론은 공공선을 획득하는 데에 있어서 공헌하지만, 국제 외교정치와 개인의 도덕성과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Edwin van de Haar, "David Hume and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a Reappraisa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4(2), (April 2008), 233.

28) David Hume, "Of Balance of Power," T. H. Green and T. H. Grose, eds., *David Hume, Essays: Moral, Political and Literary* Vol. I (London: Longmans, Green, and

이 세력 균형을 통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 안전이 보장되었음을 전제하며, 세력 균형은 한 국가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²⁹⁾ 홉은 현실적으로 국제 질서를 붕괴하는 전쟁을 예방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는 세력 균형에 있으며, 권력과 세력을 독점할 때 나타나는 지배와 정복 욕망을 통제할 원리가 세력 균형이라고 이해한다.³⁰⁾

필자가 이해하기로는³¹⁾ 현대 국제정치에서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경우는 이미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으로 자국을 충분하게 지킬 수 있으면서도 서로 간 군사력의 충돌만으로도 지구 공동체가 파멸에 이를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냉전'의 구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현재 지구 공동체를 '육대주'로 볼 때,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세력균형은 상이하다. 유럽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우는 미국이 절대 강국의 위치에 있다. 오세아니아도 국가 간 세력균형에 문제가 없는 듯 보이는데, 문제는 아시아 지역이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아시아에서 한반도 주변에는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상이하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이스라엘과 이라크, 그리고 최근에는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 등 한반도와 중동을 둘러싼 세력균형이 매우 불안전 하다. 특히 중국의 흡수정책에 의하여 중국을

Co., 1882), 348-352.

29) 위의 책, 352.

30) 위의 책, 352.

31) 이하 국제정치에서의 정치적 현실주의가 영향을 주는 국제 정치의 역학적 관계에 대하여는 아래의 강의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세계 '육대주'의 국제정세에 관한 현대적 관점은 필자의 입장을 밝힌다.

Eric Hines, "Realism," URL=<https://www.youtube.com/watch?v=eoqvax-b6JM>(최종접속: 2018년 12월 16일)

국경으로 한 나라들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내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강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영향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약소국들 간의 ‘연대’의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한다. 국가 간 긴장의 상황에서 안보에 따른 군비증강은 필수적이며,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관계를 통하여 안보가 보장되기를 원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전쟁무기를 생산하는 강대국의 군수산업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으며, 약소국은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입하여야만 한다.³²⁾

넷째, ‘전쟁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다.

전쟁이 불가피하게 침략(aggression)의 양상을 띠게 될 때, ‘예방전쟁(preventive war)’, ‘선제타격 전쟁(Preemptive attack war)’, ‘필연의 전쟁(War of Necessity)’, ‘저지른 전쟁(War of Choice)’, ‘부당한 전쟁(unjust war)’, 그리고 ‘정당한 전쟁(just war)’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³³⁾

예방 전쟁의 개념은 필자가 ‘세력균형’에서 투기디데스를 예로 설명하였듯이, 전쟁의 동기인 두려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식의 하나로 거론될 만큼 오래된 개념이지만, 그것을 하나의 이론적 개념이나 전술적 개념으로 정립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³⁴⁾ 투기디데스

32) ‘각주 32)’ 이하 지금까지 필자의 관점임을 밝힌다.

33) 이하 설명하려고 하는 ‘전쟁론의 종류’와 ‘전쟁용어의 영어번역에 따른 한글 명칭’은 전적으로 다음의 신문 기사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최종일 기자, “美가 검토중인 ‘예방전쟁’, 선제타격과 어떻게 다를까,” 서울=뉴스1, 2017.8.7. 필자는 이 기사에 나온 ‘전쟁론의 종류’를 중심으로 이하 각 전쟁의 개념을 영어원문을 통하여 파악하고 개괄하였음을 밝힌다.

34) 예방 전쟁 개념이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였다. Jack S. Levey, “Preventive War and Democratic Politics,” *International*

(Thucydides)는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테네의 군세가 강화되는 것이 스파르타 입장에서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향해 공격을 한 행위는 이러한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설명한다.³⁵⁾

콜린 그레이(Collin S. Gray)에 따르면,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 모두 전략적 개념이다.³⁶⁾ 그는 선제타격 전쟁이란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확실히 매우 압박한 공격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³⁷⁾으로 정의한다. 그레이에 따르면, 선제타격은 주로 냉전 시기에 사용된 전술로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먼저 가는 것(to go first in the last resort)”³⁸⁾을 의미한다. 그레이는 예방전쟁은 예방의 주체가 충분히 적국의 공격을 예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예상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화된다고 본다.³⁹⁾ 그레이는 예방전쟁과 선제타격은 모두 선제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Studies Quarterly. 52(1), (Mar. 2008), 1-24. Jules Lobel, “Preventive War and the Lessons of History,”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68(2), (Winter, 2006), 307-339. 리바이(Jack Levy)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예방전쟁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국제 관계에 있어서 정당화하는 이론적 시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해석하며, 예방 전쟁이라는 분명한 전술적 움직임에 근거하여 일어난 전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Jack S. Levy, “Preventive War and Democratic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2(1), (Mar. 2008), 2, 6. 한편, 줄레스 로벨(Jules Lobel) 또한 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예방전쟁이 본격화된 예라고 지적한다. Jules Lobel, “Preventive War and the Lessons of History,”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68(2), (Winter, 2006), 313.

35) 투기디데스의 관점은 앞서도 설명한 바 있다. Thucydides, trans. by Charles F. Smith,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Book I and II*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43. I, 23, lines 5-6.

36) Collin S. Gray, *The Implications of Preemptive and Preventive War Doctrines: A reconsideration* (Carlisle Barracks,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2007), 2.

37) 위의 책, v.

38) 위의 책, 8.

39) 위의 책, 11.

데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예방전쟁은 공격 주체가 그 타이밍을 결정하는 반면, 선제타격은 상대국의 예상된 공격이 임박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라고 설명한다.⁴⁰⁾

리처드 하아스(Richard N. Haass)는 ‘필연의 전쟁(war of necessity)’이란 전통적인 정당전쟁 이론에 근거하여, “근본적으로 대응적이며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자기-방어(self-defence)의 원칙에 따른 것”⁴¹⁾으로 정의하며, 전쟁의 목적은 다자간의 전쟁으로서, 이 전쟁에 개입되는 국가들은 “예상치 못한 국제 공조와 협력”⁴²⁾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하아스에 따르면, ‘저지른 전쟁(war of choice)’의 경우, 전쟁 자체가 대개 일방적(unilateral)인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⁴³⁾ 하아스는 ‘필연의 전쟁(war of necessity)’은 일반적으로 정당전쟁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에 국제적 동의를 구하는 반면, 저지른 전쟁의 경우, 먼저 주체 국가의 목적에 따라 국제적 공조를 요구한다고 본다.⁴⁴⁾

‘정당한 전쟁(war of just)’에 관하여 세드 라자르(Seth Lazar)는 전쟁의 정당성 또는 정의의 문제를 바탕으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⁴⁵⁾ 라자르는 정당한 전쟁은 전쟁을 수행해야만 할 경우, 그것을 어떻게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덕적 원리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당한 전쟁 이론은 전쟁을 일으킬 전쟁 시에 지켜야 할 ‘정의

40) 위의 책, 13.

41) Richard N. Haass, *War of Necessity, War of Choice: A Memoir of Two Iraq Wars* (NY: Simon & Schuster, 2009), 7.

42) 위의 책, 7.

43) 위의 책, 7.

44) 위의 책, 7-8.

45) Seth Lazar, “War,” Edward N. Zalta,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17), URL=<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7/entries/war/>(최종접속 2018년 12월 15일)

로운 전쟁 원칙(jus in bello)'과 전쟁을 일으킬 '전쟁권(jus ad bellum)'을 바탕으로 전쟁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⁴⁶⁾

지금까지 필자는 정치적 현실주의 이론에서 권력은 가상이 아니라 국가 간 실제로 작동하는 힘이며, 세력의 균형을 통하여서 국가의 안보가 유지될 수밖에 없게 되는 다양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정치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때, 어떤 전쟁이론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독교 현실주의 이론을 통하여 국제정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다음에서 살펴보자.

IV. 기독교 현실주의: 전쟁론을 중심으로

기독교 현실주의이론은 두 도성론을 전개한 어거스틴(Augustine), 자연법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말씀과 양심의 조화를 모색한 마틴 루터(Martin Luther), 그리고 근사치 정의를 전개한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사상을 통하여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⁴⁷⁾ 특히

46) Seth Lazar, "War," Edward N. Zalta,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17 edition), URL=<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7/entries/war>(최종접속 2018년 12월 15일). 세드 라자르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그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인용의 설명은 생략함을 밝힌다. 세드 라자르는 '정의로운 전쟁 원칙(jus in bello)'을 설명하는데, 필자가 의역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칙적으로 전쟁은 군인 대 군인 사이에서만 일어나야 하며, (2) 군사력이 충돌할 때 불가피하게 양민을 희생할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더 커야 하며, 그리고 (3)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양민의 희생이 꼭 필요하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같은 글 참고. 세드 라자르의 글에서 '전쟁권(jus ad bellum)'을 설명하는 내용을 필자가 의역하여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목적 자체가 정당해야 하며, (2) 전쟁을 선포할 때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쟁 주체가 국제 사회에서 그 지위가 인정될 만한 독립체여야 하며, (3)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따르는 반드시 합당한 사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4) 전쟁을 수행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할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예상 이익이 충분히 전제되어야 하고, (5) 비록 전쟁을 불가피하게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 결과로서 얻는 선이 악보다 더 커야하고, 그리고 (6) 마지막으로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란 전쟁 외 다른 선택이 없는 최후의 수단인 경우여야만 한다. 같은 글 참고.

이들이 이해한 '전쟁'의 개념은 인간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전쟁론을 중심으로 '기독교 현실주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거스틴은 고전적 현실주의자로서, 하늘의 도성과 이 땅의 도성은 궁극적으로는 분리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는 임시적이며, 영원한 평화는 하늘의 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⁴⁸⁾ 이와 같은 입장은 그의 전쟁론에서도 유지가 된다. 어거스틴의 관점을 살펴보면, 첫째, 이 땅의 평화와 하늘의 평화를 구분하면서, 전쟁은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되, 전쟁을 수행하려면 보다 높은 도덕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⁹⁾ 둘째, 전쟁은 정당하게 수행될 때,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평화와 정의이며, 이웃 나라 간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복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셋째, 전쟁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균형이 잡힌 지혜로운 이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⁵¹⁾ 넷째, 비록 정당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47) 이하 소개하는 어거스틴, 아퀴나스, 그리고 루터의 영어 원문은 기독교고전 영어 인터넷 도서관을 이용하였음을 밝힌다. 영어 원문은 수년 전에 필자가 pdf 파일로 다운받아 저장하였기에 별도의 접속시간 표기는 생략함을 밝힌다. 참고로 이 사이트에 있는 기독교고전 영어원문 자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힌다.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ccel>

48) Augustine, *City of God and Christian Doctrine*, "Of the sons of the Church who are hidden among the wicked, and of false Christians within the Church." B. I, Ch. 35, 21(67).

49) Augustine, *City of God and Christian Doctrine*, "Of the Conflict and Peace of the Earthly City," Book XV, Chapter 4, 286(656). 어거스틴은 '세상의 도성'에서 승리란 임시적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에서의 '영원한 평화'를 염원한다. 이 인터넷 사이트의 pdf 파일은 656쪽이다. 참고로 pdf 파일에는 목차에 별도의 '권(book)'이나 '장(chapter)' 표기가 되어있지 않고 소제목에 장(chapter) 표기가 되어 있지만, 혼돈의 여지가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해당 소제목, 권(Book), 장(Chapter), pdf 파일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원문 페이지, 그리고 pdf 페이지 순서로 인용표기를 대신한다.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ccel>

50) Augustine, *City of God and Christian Doctrine*, "Whether it is suitable for good men to wish to rule more widely." B. IV, Ch. 15, 72(181).

51) Augustine, *City of God and Christian Doctrine*, "Of the diversity of languages, by

아군이나 적군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승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한다.⁵²⁾ 다섯째, 평화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칫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아래와 같이 경고하고 있다.

[실라(Syllar)와 마리우스(Marius)의 전쟁에서] 어떤 이는 무장하지 않은 사회집행인들에 의하여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였다. 살아있는 사람을 맹수보다 더 야만스럽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버려진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것이 익숙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어떤 이의 눈을 빼고 사지를 갈래갈래 잘라 내어 바로 죽여버리지 않고 살려두어 [고통을 당하도록 더 내버려 두었다... 이런 일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 평화의 시기에도 일어났다. 좀 더 신속하게 승리를 쟁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볍게 생각하여 일어난 일이었다. 평화와 전쟁이 누가 더 잔인한지 겨루었는데 평화가 전쟁을 눌러 버렸다. 왜냐하면 전쟁은 무장한 군인들을 격퇴하였지만, 평화는 무장하지 않은 이들을 살해하였다. 전쟁은 쳐들어온 이를 풀어주었고 반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평화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살려주지 않고 오히려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죽음으로 내몰았다.⁵³⁾

평화와 전쟁의 폭력성을 비교하면 당연히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쓴 평화이면에 폭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어거스틴의 통찰력은 그가 결코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이상주의적 관점을 가

which the intercourse of men is prevented; and of the misery of wars, even of those called just." B. XIX, Ch. 7, 405(924).

52) Augustine, *City of God and Christian Doctrine*, "Of the liberty proper to man's nature, and the servitude introduced by sin, - A servitude in which the man whose will is wicked is the slave of his own lust, though he is free so far as regards other men." B. XIX, Ch. 15, 411(937).

53) Augustine, *City of God and Christian Doctrine*, "Of the victory of Sylla, the avenger of the cruelties of Marius," B. III, Ch. 28, 61(156).

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전쟁에 관한 고전적 현실주의적 관점은 아퀴나스에 이르러 조금 더 자세히 이론적으로 전개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퀴나스도 ‘정당전쟁(Just War)’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그 요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은 ‘덕(virtue)’을 이루어야 하는데, 비록 무장하여 전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력이 동원된 살상이 불가피하게 따르게 되기 때문에 덕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아퀴나스는 보고 있다.⁵⁴⁾ 둘째, 아퀴나스는 전쟁을 수행하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의 정당한 권위, 전쟁이 일어나야만 하는 정당성, 그리고 군사들이 전쟁수행에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지를 꼽았으며,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보았다.⁵⁵⁾ 셋째, 성직자나 감독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퀴나스는 이들의 사명은 우선 영적 일에 집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혼돈은 피해야 하며, 아울러 이들의 사명은 전적으로 제단을 지키는 청지기의 역할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⁵⁶⁾ 넷째, 전쟁 수행 중에 매복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아퀴나스는 일반적으로 속임수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짓에 의하든지, 아니면 약속을 깨뜨릴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상대방을

54)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trans.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Y: Benziger Bros., 1947), II-II(Second part of Second part), Q(question). 2, A(article). 5. “Treatise on The Theological Virtues: Whether man is bound to believe anything explicitly?” 1571. 이하 ‘*Summa Theologica*’로 대신하며, 인용 페이지 명기는 본문에 있는 pdf 파일 페이지로 표기한다. 참고로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정당전쟁(Just War)’에 대한 언급을 본문에서 총 13번 하고 있다.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i.html>

55) *Summa Theologica*, II-II, Q. 40, A. 1. “Of war: Whether some kind of war is lawful,” 1813-1814.

56) 위의 글, 1815-1816.

속이고 매복하는 경우, 성경도 아직 신비에 싸인 해석이 있듯이, 적에게 우군의 작전을 모르게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⁵⁷⁾ 다섯째, 성일에 전쟁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아퀴나스는 구약 외경이 마카비서(1 Maccabees 2:41)를 인용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안식일에 싸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듯이(요 7:23), 육체의 보전을 위하여 성일에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⁵⁸⁾ 여섯째, 전쟁 중에 탈취한 적의 물건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만일 그 의도가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성취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정당하다고 아퀴나스는 보았다.⁵⁹⁾

마틴 루터는 “슈바비아 농민들의 12개 요구조항(The Twelve Articles of the Peasants of Swabia)”에 대하여 1525년 “평화에 대한 권면(Admonition to Peace)”이라는 논문에서는 비록 권세자들이 사악하다고 할지라도 자연법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 무분별하게 복수할 수 없으며, 그리고 신법에 있는 것처럼 복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권면한다.⁶⁰⁾ 그러나 1525년에 쓴 그의 글 “도적질과 살인을 자행하는 농민폭도들에 반대하며(Against the Robbing and Murdering Hordes of Peasants)”라는 논문에서 폭도들이 세 가지 죄를 지어 영과 육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폭도들의 행위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며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반역

57) 위의 글, 1816-1817.

58) 위의 글, 1817-1818.

59) *Summa Theologica*, II-II, Q.66, A.9. “Of Theft and Robbery: Whether theft is more grievous sin than robbery?” 1975.

60) Martin Luther, “Admonition to Peace,” 영어원문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였으며,재인용 출처는 인용정보가 없어서 생략한다. 참고로 'Swabia'는 영어 소리 '슈바비아'로 음역하였다. URL=<https://docs.google.com/viewer?a=v&pid=sites&srcid=dmhoc2NvdWdhenMub3JnfGpvaG5zZWYy2h8Z3g6MWZlMzI2NGUyZmViZTdhOA>

이며, 그리고 자신들을 ‘그리스도형제(Christian brethren)’라 자처하며 폭동과 살인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복음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았다.⁶¹⁾

따라서 마틴 루터의 저서들을 살펴보면, 전쟁에 대하여 매우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첫째, 루터는 세상에서 전쟁은 끊임이 없으며,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⁶²⁾ 둘째, 루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죽인 이들에 대한 보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원수까지도 포함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평화주의를 강조하고 있다.⁶³⁾ 셋째, 마틴 루터는 세상에서 전쟁과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한 마리의 불쌍한 양이 수백 마리의 늑대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그러한 곤경에 처할 때, 늑대들보다 더 강한 사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⁶⁴⁾ 넷째, 루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전쟁이라면 필연적임을 강조한다. 그는 다윗을 언급하면서 명상이나 수도와 같은 일을 핑계로 전쟁과 같은 공의를 수행하는 일을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61) E. G. Rupp and Benjamin Drewery, *Martin Luther, Documents of Modern History* (London: Edward Arnold, 1970), 121-126. 영어 원문은 아래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임을 밝힌다. URL=http://zimmer.csufresno.edu/~mariterel/against_the_robbing_and_murderin.htm

62) Martin Luther, *The Bondage of Will*, 41, 42, 43, 60, 224.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

63) Martin Luther, *Assorted Sermons by Martin Luther*, “Section III. The comfort of Christ suffering,” 192(23). 참고로 페이지 인용은 pdf 파일에 별도로 인용되어 있는 원본 페이지를 앞에, 그리고 괄호에는 pdf 파일 페이지를 표기함을 밝힌다.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64) Martin Luther, *Table Talk*, “Of Jesus Christ,” CCXVIII, 92-93. 참고로 페이지 인용은 pdf 파일에 있는 페이지를 표기함을 밝힌다.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ccel>

한다.⁶⁵⁾ 아울러 당시 터크(Turk)족과 연합한 적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싸워야 할 정당성을 강조하였으며,⁶⁶⁾ 교황에게 세금을 낸 이유도 기독교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⁶⁷⁾

필자가 이해할 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이 궁극적으로는 분리될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고전적 현실주의 입장을 취하지만, 루터는 두 정부론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안식처, 그리고 권력은 칼로 정의를 수행하여 이 땅에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두 정부의 조화를 모색한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이해하는 바로는, 현실주의 전통에서 라인홀드 니버는 근대 세계관 속에서 정치적 현실주의를 가장 잘 발전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기독교 변증법’이 현실주의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⁶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는 전형적으로 니버식의 변증법이 전개되는데, 그것은 ‘장’ 자체도 문제이며, 그 대안으로 나온 ‘반도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합의 대안도 전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⁶⁹⁾ 니버는 이 책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일종의 도덕적 판단도 완전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집단이 취하는 비도덕성은 더 불안전 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개인은 그 이기

65) Martin Luther, *Table Talk*, “Of Justification,” CCCXVIII, 138.

66) 위의 책, “Of the Antichrist,” CCCXVCII, 191-192.

67) Martin Luther, *The Ninety-five Theses and Three Primary Works of Dr. Martin Luther*, 34(86).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

68) 필자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라인홀드 니버식의 변증법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료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Kyoung-Dong Yoo, *Re-visioning Reinhold Niebuhr's Christian Realism on the Road to Korean Unification* (Kingdom Books, 2018), 32-65. 참고로 상기 책은 필자의 아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출판한 책임을 밝힌다. Kyoung-Dong Yoo, *Re-visioning Reinhold Niebuhr's Christian Realism on the Road to Korean Unification* (Ph. D. Dissertation, Vanderbilt University, 2000).

69)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 (New York: C. Scribner's, 1932)

적 속성을 집단 안에서 그 동기를 숨긴 채 극대화하려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혁명이나 경제적 개혁, 나아가 사회생활을 위한 개인의 합리성이나 종교성도 합목적성을 가지지 못하며,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와 같은 니버식의 정치적 현실주의는 ‘근사치 정의(Justice of Approximation)⁷⁰⁾로 불완전 하지만, 정치세력 간, 힘의 균형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사랑을 통한 ‘불가능의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⁷¹⁾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전쟁’과 같은 현실문제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어떤 관점을 취하여 왔는지 살펴보았다. 어거스틴 이후로 기독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서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며, 대신 전쟁이 발발할 경우, 무력의 억제와 생명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정당전쟁론이 과연 현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그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다음 장에서 정치적 현실주의의 과제로서 부각되는 쟁점을 정리하면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V. 기독교 현실주의의 과제와 전망: 실제 대(對) 현실

지금까지 필자는 평화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리얼리즘’ 해석의 예비적 고찰로 실재론과 현실주의, 정치적 현실주의, 그리고 기독교 현실주의 이론을 검토하여 보았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상황과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⁷²⁾ 속에서 과연 기독교현실주의 이론이 어떻

70)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Human Destiny* (New York: C. Scribner's, 1943), 254, 265-266, Reinhold Niebuhr,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and London: Harper & brothers, 1956(1935)), 85.

71) Reinhold Niebuhr,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and London: Harper & brothers, 1956(1935)), 19.

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의 실재(reality)는 ‘현실(reality)’보다 앞선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기독교 현실주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반면에, 정치적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에서 힘(power)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전쟁까지 불사하는 물리적인 힘을 전제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어거스틴 이후 니버에 이르기까지 ‘권력(힘, 세력, power)’의 최종적인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전쟁에서 작용하는 국가 간 권력투쟁은 유한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실재(reality)’는 세상의 ‘현실(reality)’보다 앞선다.

둘째, 평화의 실재(reality)는 전쟁의 현실(reality)보다 앞선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현재 국제정치적 현실에서 전쟁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전쟁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석유전쟁’은 제국주의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현실(reality)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구도는 남북한의 대결적 구도 속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사이의 ‘종전’과 ‘평화협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핵의 문제를 둘러싼 주변 세력의 안보전략은 한 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게 한다. 앞의 ‘정치적 현실주의’에서 살펴본 것같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은 ‘필연의 전쟁(war of necessity)’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방 국가들의 공조를 모색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지른 전쟁(war of choice)’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핵문제와 둘러싼 한반도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평화의 실재는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고백하는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72) 필자 주) 그동안 남북한 정상 사이에서 맺어진 선언은 ‘7.4 남북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 공동선언(2000)’, ‘10.4 남북공동선언(2007)’, ‘4.27 판문점 선언(2018)’, 그리고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2018)’이 있다.

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기독교의 평화는 상징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전쟁은 현실이지만 평화는 실재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기독교 현실주의 전통에 있는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그리고 니버는 평화를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교회의 공공신학적 사명을 충분히 강조하였다고 본다. 전쟁의 대안은 궁극적으로 평화이지만, 그 보다 올바른 권력을 통하여 평화를 수호하는 데에 교회의 사명이 있음을 저들이 간과하지 않은 것처럼, 한국의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정치적 책임에 대하여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셋째, 선(Good)의 실재(reality)는 악의 현실(reality)보다 앞선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기독교 현실주의의 장점은 인간성 속에 숨겨져 있는 권력에 대한 욕망의 동기를 고발하고, 회개와 양심의 각성을 촉구하는 데에 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선의 실재이지 악과 고통의 유발자가 아니다. 전쟁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인간의 몫이다. 다만 비도덕적 인간과 그리고 그 인간보다 더 비도덕적인 정치 사회적 구조 속에서, 권력의 실체를 밝히고, 권력구조에 숨어서 더 큰 권력을 욕망하는 인간적 행위의 뿌리를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선의 실재는 악의 현실보다 항상 선행하며, 악의 구조를 개혁하는 데에 필수조건이 된다.

VI. 나가는 말

평화는 하나님의 현실(reality)이다. 정치적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실재’, ‘평화의 실재’, 그리고 ‘선의 실재’는 기독교 현실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본다. 유한한 지구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점점 ‘안보 딜레마’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남북한이 그나마 국제세력의 쟁투 요인이 될 수 있는 ‘자연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면 역설일까? 그러나 주변 열강에 둘러싸인 취약한 안보의 허점 때문에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실재(Reality)를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야 한다. 평화는 실재이지만 그 실재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성육신의 길을 택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평화는 이미 실재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러한 제자도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회복과 복음의 사명이 여전히 남아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ca*, trans.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Y: Benziger Bros., 1947),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
- Augustine, *City of God and Christian Doctrine*,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
- Butterfield, Herbert, "The Tragic Element in Modern International Conflict," *The Review of Politics*. 12(2), (Apr. 1950), 147-164.
- Gray, Collin S., *The Implications of Preemptive and Preventive War Doctrines: A reconsideration* (Carlisle Barracks,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2007)
- Haass, Richard N., *War of Necessity, War of Choice: A Memoir of Two Iraq Wars* (NY: Simon & Schuster, 2009)
- Hawerwas, Stanley, *Excerpts from From Christ To The World*, ed by Wayne B. Boulton et al.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 Herz, John H., "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2(2), (Jan. 1950), 157-180.
- Hume, David, "Of Balance of Power," T. H. Green and T. H. Grose, eds., *David Hume, Essays: Moral, Political and Literary* Vol. I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882)
- Luther, Martin, *Assorted Sermons by Martin Luther*,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
- Luther, Martin, *The Bondage of Will*,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
- Luther, Martin, *The Ninety-five Theses and Three Primary Works of Dr. Martin Luther*, 34(86).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
- Martin Luther, *Table Talk*,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

- Milner, Helen, "The Assumption of An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Critiqu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7(1), (Jan, 1991)
- Moore, Andrew, *Realism and Christian Faith: God, Grammar, and Meaning*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Niebuhr Reinhold,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and London: Harper & brothers, 1956(1935))
-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 (New York: C. Scribner's, 1932)
- Niebuhr, Reinhold,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Human Destiny* (New York: C. Scribner's, 1943)
- Rupp E. G. and Drewery, Benjamin, *Martin Luther, Documents of Modern History* (London: Edward Arnold, 1970),
- Samuels, Warren J., "Equilibrium Analysis: A middlebrow View," Valerie Mosini ed., *Equilibrium in Economics: Scope and Limits* (NY: Routledge, 2007)
- Thucydides, trans. by Charles F. Smith,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Book I and II*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g Grove, IL: Waveland, 2010)

논문투고일: 2018년 11월16일

심사개시일: 2019년 11월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11일

 • 국 문 초 록 •

평화는 인간의 항구적인 과제이자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는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평화의 문제가 대두되는 중요한 이유는 주로 권력투쟁을 통하여 약자들에게 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폭력의 문제에 대하여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과 현실주의적 입장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고 본다. 비폭력 평화주의는 인간의 양심 또는 인간성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적 실체에 대항하여 몸으로 폭력을 저항하되 더 이상 폭력이 재생산 되지 아니하도록 평화와 사랑에 호소한다. 이와 달리, 기독교 현실주의는 폭력을 야기하는 권력욕에 취한 인간성의 실체를 해부하고 폭력에 대한 대안은 세력균형과 올바른 권력, 그리고 인간 이성의 역할을 기대하며 연대를 통한 평화의 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필자는 본 글에서 한반도 평화안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서 특히 기독교 현실주의 이론에서 중요한 주제인 리얼리즘(Realism)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기독교 현실주의적 이론에 대한 검토는 크게 세가지 점이다. 첫째는 '실재/현실(Realism)'의 개념을 정치윤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 둘째, '실재/현실' 개념을 기독교 현실주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정치적 현실주의와 기독교 현실주의의 이론을 비교 검토하면서 기독교 현실주의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리얼리즘(Realism)을 각 분과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정치적 리얼리즘과 기독교 리얼리즘의 간학문적 통섭의 예비적 고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실재론, 기독교 현실주의, 전쟁과 평화, 권력
